

청년 208명, 스마트팜 창업 '첫 발'

농식품부, 올해 지능형농장 청년창업보육센터 신규 교육생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첨단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이하 스마트팜)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2년 신규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에서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김제시를 비롯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에서 지난해까지 580명이 교육을 수료했거나 교육 중이다. 올해 모집에는 총 567명이 지원해 2개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신청자들의 창업 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교육생들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1.2세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한 교육생이 다수(고졸 19.2%, 대졸 68.3%, 대학원졸 12.5%)를 차지하며, 여성 교육생은 작년 대비 7명 늘어난 52명(25%)으로 여성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전자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13년간 근무한 연구원, 일본 100대 정보기술(IT) 기업 중 한 곳인 B기업 데이터분석가 등 타 분야에서 농업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정보통신기술 전문 인력이 다수 포함되는 등 비농업계 전공자(154명, 74.0%)가 농·농대 등 농업 분야 전공자(54명, 26.0%)의 약 3배 수준으로 타 분야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창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재직했던 농업연구기관을 퇴사하고 교육에 참여한 30세 여성 연구사, 작년에 불합격하였지만 낙담하지 않고 대학교 부설 스마트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재도전에 성공한 37세 청년 등도 올해 교육생에 선정되는 등 스마트팜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열의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말부터 4개 보육센터에서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 교육기간 중 교육실습비 최대 월 7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기초이론 중심의 입문교육(2개월)과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형 실습(6개월), 경영형 실습(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며, 특히 경영

형 실습 과정에서는 보육센터 내 스마트팜 실습 온실에서 실제 영농활동과 동일하게 자기책임 하에 1년간 농장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과정은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혁신단지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수행실적 우수자),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등이 부여되고 농업신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과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 스마트팜 취·창업에 필요한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통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망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과정을 지속 발전시키고 교육 수료 후 실제 스마트팜 창업에 통해 우리 농업의 혁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달 25~29일 5일간 무궁화신협,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파닉스와 함께 장수군 정계면에 소재한 정계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협, 장수서 무료 한방의료봉사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무궁화신협(이사장 송성수),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파닉스(회장 박찬호)와 함께 장수군 정계면에 소재한 정계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무궁화신협이 주관하고 신협중앙회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후원,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파닉스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무궁화신협 임직원 및 경희대 의료봉사단원 70여 명의 봉사자가 장수군 지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한다.

의료지원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침구, 보안장갑과, 주사기와 등 총 8개 파트에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침·부항·뜸 치료, 외용 치료, 치매 및 불면증 치료, 테이핑 요법 등 맞춤형 진료와 처방을 진행한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신협은 농촌과 상생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사각지대에

농민 지역 내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성수 무궁화신협 이사장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수군 지역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 준 경희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장수군 주민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찬호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파닉스 회장은 "파닉스 회원분들의 헌신, 장수군과 무궁화신협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3년 만에 봉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의료봉사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2015년부터 6년간 도서·산간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계와 동계 연 2회 한방의료봉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 1만 1,173명에게 다양한 무료 한방 진료를 제공했으며,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및 신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총 60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재)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함께 지난달 28일 공단 본부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 240명과 연금골든벨 퀴즈대회 온라인 본선을 진행했다.

퀴즈 통해 국민연금 이해력 '쑥쑥'

국민연금공단,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연금골든벨' 행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재)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함께 지난달 28일 공단 본부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 240명과 연금골든벨 퀴즈대회 온라인 본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등에 관한 퀴즈대회를 통해 미래 가입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

해 마련됐다.

7월 한 달간 실시한 예선에는 전국 6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1,200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본선에 진출한 240명의 아동들이 퀴즈를 풀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종 10인에게 장학금과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8월에는 행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별로 '국민연금 나눔캠프'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단은 이에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aT·시청자미디어재단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달 29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과 함께 농수산식품생산·유통 종사자 및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커머스 방송 및 콘텐츠 마케팅의 이해 △커머스 방송을 위한 홍보콘텐츠 기획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으로 편성됐으며, 앱을 이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교육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센터(10개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수산식품거래소 운영매분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분야의 디지털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교육생들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지주, 첫 중간배당 실시

JB금융지주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사상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보통주 1주당 120원의 중간배당을 의결했다. 시가총액은 1.6% 배당기준일은 9월 30일이다.

이번 중간배당은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의 주주환원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김 회장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주주 가치 제고안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8일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중간배당은 JB금융그룹 설립 이후 최초"라고 언급했다.

JB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32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2분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

사회사별로는 전액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10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고 광주은행은 21.8% 오른 1249억원을 기록했다.

JB유리카피탈은 1.3% 증가한 108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오렌 6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특히 주요 경영 지표 부문에서 지배지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2, 총자산수익률(ROA)은 1.14%를 기록해 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유지했다. /뉴시스

'공간정보·친환경·ESG 신산업 창업 지원합니다'

LX, '제1회 국토정보 창업 공모전'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LX공사)가 ESG 경영실현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창업 지원에 나선다.

LX공사는 공간정보산업 성장환경 구축과 창업정책의 관심도를 높이고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1회 국토정보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참가자격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디지털트윈, 드론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전 분야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친환경·ESG 분야 △메타버스, ICT 등 신산업 등 세 가지 분야이다.

LX공사는 1차 서면 심사,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총 5개 예비창업자(기업)를 선발할 예정이며, 대상에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선발된 예비창업자(기업)에게는 무상 창업공간, 컨설팅, 교육,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공간은 전주시 신산업융합차산산업센터에 위치한 LX공간드림센터(전북)에 마련된다.

공모전 신청은 'LX공간드림센터 홈페이지(startup.lx.or.kr)'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모전 관련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LX공간드림센터' 또는 LX공사 ESG경영처(063-713-1146)에 연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범국민·범농협 쌀 소비촉진 행사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이 지난달 29일 범국민·범농협 쌀 소비 확대 운동의 일환으로 무주 반딧불 쌀 소비촉진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사랑의 쌀1,000kg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행사 실시 이유는 쌀 소비감소로 인한 쌀 재고량 증가 및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것

이날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를 찾는 고객들에게 소포장 쌀을 나눠주며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평화요양원과 하은요양원을 찾아 사랑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내년 중위소득 5.47% ↑ ...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62만원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내년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기본증가율 3.57%에 통계와 현실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증가율 1.83%를 적

용해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1789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1964원, 5인 가구 633만1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쓰인다.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됐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62만289원, 의료급여는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482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뉴시스

전북서남상의, 시니어인턴십 참여업체 수시 모집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고자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인턴으로 고용한 사업장에 인턴기간 동안 지원한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폭넓은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로 나선다는 방침이며,

4대 보험 가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반드시 상공회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종필 회장은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을 통한 관내 기업체에 안정적인 인력수급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고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